

가게 쪼개 창업... '땅콩 상가' 뜬다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분주하게 손을 놀리는 한 상인이 있었다. 밀러드는 주머니에 담꼬치를 구워내는 이 상인의 손놀림도 덩달아 분주했다. 이곳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서 있기도 비좁아 보였다. 상가는 넓이가 채 한 평이 되지 않았다. 손님을 맞는 상가 입구 쪽은 좁고 그나마 안으로 긴 형태인 덕분에 재료를 쌓아두고 조리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 좁은 평수의 '땅콩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월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개의 업체가 사용하던 공간을 2~3개로 나눠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이 다양한 먹거리를 선호하고 있는 충장로 상권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젊은 상인들이 '땅콩 상가'를 선호하고 있어 앞다투어 상가를 쪼개는 건물주들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충장로 일대 한개 상가 2~3개 나눠 비싼 임대료 부담 줄여 핫도그 등 이색 먹거리 창업 인기...청년 상인들 새 트렌드로

의 설명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먹을거리와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들 땅콩 상가는 광주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실제 이 닭꼬치집 옆 상가도 2평 남짓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 때 오징어 버터 구이 등을 팔며 손님을 모았고, 최근에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상가에서 5m가량 떨어진 곳도 형광등 모형 등 이색 용기에 음료를 담아 파는 땅콩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인근의 충장로 1가 일대에서도 땅콩 상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상인 중심으로 기존의 상가를 쪼개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 상가와 상가 사이의 늘어난 공간을 활용한 상가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이곳에는 핫도그와 이색 빵을 파는 맛집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현대전화 대리점 일부를 쪼개 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계단이나 출입구 일부를 막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아예 상가 일부를 나눠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영업을 하는 등 '땅콩 상가'가 충장로 일대 창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들 땅콩 상가는 기존의 상가와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등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카페의 일부를 개조해 현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는 한 땅콩 상가 업주는 커피를 주문하면 현대전화 구입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과거 충장로 상권이 창업 후 장사가 되지 않아 문



을 닫으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 탓에 남은 월세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땅콩 상가는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고, 월세 부담도 덜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몰려들면 주변 상가의 매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근 건물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93.08 (-2.25)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3)
↑ 코스닥 640.01 (+0.90)	↑ 환율 (USD) 1118.30원 (+2.30)



효성이 지난 16일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Chinaplas) 2017'에 참가해 고객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2017 최대 플라스틱 박람회 참가

중 광저우 차이나플러스...토피렌·포케톤 등 선보여

효성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Chinaplas) 2017'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이나플러스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산업 박람회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사다. 효성은 이 전시회에서 화학PG의 폴리프로필렌(PP) 브랜드 '토피렌(Topilene)'과 폴리케톤 브랜드 '포케톤(POKETONE)'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효성의 기업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전시 부스를 디자인하고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기술 세미나'를 실시했다.

올해는 효성의 폴리프로필렌 사업 부문이 처음으로 참가해 파이프, 필름, 투명용기, 내열가전용 등 다양한 응용품을 공개했다. 효성은 고순도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탈수소 공정 등 독자적으로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토피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시회 현장에서는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파이프용 폴리프로필렌 '토피렌 R200P'에 대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토피렌 R200P의 경제성과 친환경성, 화학적 안정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효성은 이와 함께 폴리케톤 브랜드 포케톤도 지난 해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인 포케톤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만들어지며 충격 강도와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에너지신산업 진출 中企 문턱 낮추고 국가차원 정책 추진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에너지신산업 통한 中企 발전방향'

동반성장 포럼 100여명 참가

"지역 중소기업에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우대제도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중소기업주간인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대·중소기업동반성장포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2017년 상반기 동반성장 포럼'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17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 대연회장서 열린 '2017년 상반기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에서 패널들이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이날 포럼에서는 이형은 한국전력공사 수출협력처 부장과 이재형 에너지밸리추진실 차장이 각각 '한전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과 '에너지밸리 조성 및 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용기 광주대·중소기업동반성장포럼위원장의 사회로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차용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용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양희원 (주)ELT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박용희 책임연구원은 "한전만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구축은 힘들다고 지적

하며, 정부차원에서 에너지밸리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국가차원의 정책이 반영되고 에너지클러스터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기업들에 대해 경영평가 때 지역경제 협력도를 적극 반영해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차용훈 산학협력단장은 "에너지밸리는 일반 산업단지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을 위한 모든 기업지원 기관 및 대학까지 입주시켜 에너지신산

업 육성의 요람으로 거듭나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개발체인(주)ELT 양희원 대표는 "실제 지역 중소기업이 에너지분야 신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 R&D인력이 필수적이거나 생활인프라나 급여부문에서 만족시켜주기 힘들어 우수인력을 수도권으로 뺏기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 등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에너지밸리 조성 등 한전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노력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한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사업참여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한전에서 가점부여 등 지역기업 우대제도를 통해 사업참여도를 높여야 지역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신산업 일자리 2025년까지 38만개 생긴다

12대 신(新) 산업에서 2025년까지 3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서 12대 신산업 총사자 수는 2015년 20만3000명에서 2025년 58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 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신소재, 가상·증강현실(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다. 분야별로는 고급 소비재에서 가장 많은 13만7000명이 필요하고, 로봇 8만4000명, 에너지 신산업 6만8000명,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각 5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신산업 총사자 중 연구개발, 품질검증 등 전문성을 가진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2015년 40%에서 2025년 5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세종계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하다!

-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사설부동산도, 진도, 강진, 완주, 임천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 향정교육의 중심** - 군청, 병원, 세무서 모든 행정은 물론 유치원,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중,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 복합 테마상가** - 무도, 의료, 의료, 미용, 학원, 업소학원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목실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성품,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두번대시 없음 [MR] 프리미엄 가치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가점 인박!

분양 전환 아파트 24/35PY

분양문의 (062) **610-9232**

분양·임대 1577-1901

사학 | 주지금상
사단 | 진보종합건설(주)

* 본 이야기는 -AS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한 것입니다. * 본 홈페이지에 기재된 세부계획 등은 해당 기간 및 시점에서의 실제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자의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가점 인박!

분양 전환 아파트 24/35PY

분양문의 (062) **610-9232**